

인천환경공단, “내년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7억 절감”

합수율 줄이기 기술개선 효과...지난 2년간 20억 절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16일 자원순환사회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2023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5,764톤을 감량하여 처리비용 약 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 합수율을 줄이기 위해 운영효율 향상 등 끊임없는 기술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생량 15,659(톤)을 줄여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였다.

하수찌꺼기 감량을 위해 공단은 △ 첫 번째로 하수찌꺼기 목표관리제 지속 추진으로 합수율을 개선하여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따라 발생지 폐기물을 2023년에 5,764톤 감

량화하여 처리비용을 약 7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 두 번째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하수찌꺼기 감량화를 위해 탈수기 선정시 표준화(지침)을 작성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탈수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시설의 최적운영을 도모 할 계획이다.

△ 세 번째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하수찌꺼기 합수율 감량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감량화를 추진하여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친환경 인천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다.

△ 네 번째는 하수찌꺼기 합수율 저감을 위해 탈수기 상시점검과 정기적인 유지보수, 최적응집제 선정

· 운영매뉴얼 작성, 현장 수분측정기 상시 활용, 시설 운전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등을 추진하여 운영효율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절감재원을 적시에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에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인천 환경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옹진군 영흥도 사업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허식 인천시의장, 옹진군 영흥도 사업 점검

인천 에코랜드 부지,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옹진군 영흥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 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17일 인천시의회 신영희(옹진) 의원, 문경복 옹진군수 및 옹진군 관계자, 옹진군의 원 등과 함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인천 에코랜드 부지),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각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현재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사업’은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102ha),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27만9천606㎡),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82만㎡)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는 스마트팜 원예단지(생산·가공·유통·물류 등) 및 영흥화력 온배수 활용 폐열 재이용 시설을 조성해 신규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단지다.

또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토지 분양으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다.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 단지를 살핀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현재 영흥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니 옹진군은 물론 영흥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사업 구상인 것 같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시와 소통을 해가면서 하루 빨리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 단지에 인천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 유치 등도 함께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의 의지에 달린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강화군에서 마을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제공)

강화군, 마을 체육시설 안전점검·정비

안전기준·소방시설·피난통로 점검 등

인천 강화군이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한 마을별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군은 공공체육시설 88개소, 민간체육시설 54개소, 야외 운동기구 204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은 안전기준 준수, 소방시설 및 피난통로 등을 점검하고, 야외 운동기구는 부수대상을 파악해 수리도색·안전판 등을 보수하고 이용이 저조한 운동기구는 이전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각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서는 아동 동선을 고려한 휴게 의자, 정수기 및 휴대폰 충전기 위치 등을 더욱 세심하게 파악해 편안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민선 8기의 강화군은 마을 중심의 여가 시설 확충에 나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 유희 부

지를 활용한 건강·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근거리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구현을 위해 면단위 복합 생활문화센터 확대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을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체육시설은 고품질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어르신 이용 측면에서 가장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 정기회의

세부사업·성과지표 심의·의결 등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위 정기회의를 했다.

(사진: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는 지난 1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세

부사업과 성과지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회의는 각 부서에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진단결과를 반영해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신규·변경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앞서 분과별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안건은 모두 원안동의로 확정됐다.

아울러 부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2023년도 이행계획은 내년 2월 중 부평구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오수길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도 시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운영 조차체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확산을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지속가능한 도시 부평”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서구 연희동,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

명진화성-글로벌웨어, 아동에게 노트북 케이스 기부

인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는 명진화성(대표 하영문)이 지난 16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단체인 글로벌웨어를 통해 연희동에 노트북 케이스 500개(1천2백5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공촌초등학교 전교생 400명과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100명 등 총 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연희동은 관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며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편중 없이 분포돼 있

다. 이 중 절반가량은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어 민간단체의 후원과 나눔이 더 필요한 지역이다.

하영문 명진화성 대표는 “이웃들의 응원이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눔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영명훈 연희동장도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뜻 나서기부를 실천해주신 명진화성

에 감사드린다”며 “가족처럼 이웃과 이웃이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연희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희동은 ‘소파행(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달 아동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인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동네 골목마다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연희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영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인천교통공사, 노후설비 개량 사업

혼잡도 분석·미아 찾기 등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1999년) 이후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CCTV 개량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CCTV 설비는 저화소(41만 화소) 고정형 아날로그 카메라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노후도가 심하여 2020년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일괄교체가 필요한 ‘D(미흡)’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진행

해 온 개량이 완료되면 766대의 아날로그 카메라가 1,711대의 IP 카메라(지능형 카메라 1,299대 포함)로 바뀌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해상도는 41만 화소에서 최대 800만 화소(UHD)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인천시청역에 시범 설치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의 플랫폼 확대 구축이 완료되면 원격 순찰이 가능하고 화재·승강기 및 승강장 안전문 등 이상 발생시 3D

맵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첨단 객체 인식 기능으로 혼잡도 분석 및 미아 찾기 등이 가능해진다.

공사 정일봉 기술본부장은 “지난 8월 완료한 승강장 행선안내설비 개량사업에 이어 이번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역무원의 안전한 직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편집=민영경 기자 myk@